

고향사랑기부로 아름다운 동행 시작

우범기 전주시장-정현을 익산시장, 상호 지역에 기부금 전달...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추진 약속

백제의 문화가 관통하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상호 기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을 알린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4일 익산시청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약속하면서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우 시장과 정 시장은 상호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고, 기부금 전달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약속했다.

당장 양 지역은 각 지역에 도서관을 가상에서 만날 수 있는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의 논의를 시작했다.

아곳에서는 전주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은 꽃심도서관과 책가동도서관을 비롯해 익산의 생태특화 유전도서관과 한옥형 금마도서관이 소개된다. 또 서재와 가상 독서 축제 등 차별화된 도서관 콘텐츠를 가상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상한다.

또 양 지역은 경제와 교육 등 전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동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동 사업 개발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 협력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백제 역사·문화 자원이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 전주와 익산은 백제의 문화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익산은 무왕에 이르러 백제사 전반에 등장하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4일 익산시청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약속하면서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왕궁리 유적 등으로 백제 시대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으로서 백제의 명맥을 이어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력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과 전주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매우 각별한 지자체이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상생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

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부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조촌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전주시보건소, 치매조기검진·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

전주시에 네번째 치매안심마을이 들어선다.

지난 24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주시민의 치매없는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 조촌동을 네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김신선 소장은 올해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을 위한 각 동 주민센터에 치매안심마을 지정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조촌동이 네번째 마을로 선정 됐다.

조촌동은 노인인구비율과 치매환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어르

강당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게 치매안심마을 운영 계획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주민 사정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유관기관 협약, 치매안심가맹점(가게),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여기에 치매예방 인식개선교육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도움물품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조촌동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모집

전주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120명을 모집한다.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참여 자격은 만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에 한한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급 9620원, 간식비 5000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다 함께 누리는 신명나는 주거복지’ 실현 총력

전주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5개년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전주시는 '제2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었다.

전주시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김성규 시의원, 주거복지 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하며,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용역 수행)으로부터 지난 11개월 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청취했다.

최 소장은 이자빌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3대 정책 방향과 6개

정책목표 17개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6개 정책목표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공급, 주택 품질 제고, 관리 통합 주거환경개선, 전수형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제도적 기반비전 등이다.

실현을 위해 전수형 수요 맞춤형 테마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주택관리 기능 확대 및 L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관리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지역조사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 수요·공급 분석, 민

간·공공의 주택별 심층면접조사, 주거실태조사(3000가구), 기존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주거복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전망이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제2기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전주시가 지향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큰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시민들의 주거실태와 다양한 생애주기별 주거특성 등을 반영한 주거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이 다함께 누리는 신명나는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완산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완산구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3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2주간 유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 또는 강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속기간을 통해 '학교주변, 간선도로, 주거 밀집지역'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지류벽보, 에어라이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란성 전단지, 사채대출 전단지' 등 사행성 광고 근절을 위한 단속을 함께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주변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완산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완산구 6만8,198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3곳에 의뢰해 진행된다.

검증이 끝난 후 개별공시지가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 동안지가 열람이 가능하고 공개된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지가검증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균형유지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사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5.92% 전

북 6.41% 전주시 완산구는 6.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산구청 민원지적과(063-220-5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